

2020 행정사무감사 일일브리핑

2020년 11월 16일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일일브리핑

1. 상임위원회 전체평가

1) 행정자치위원회

- * 피감기관 : 대변인실, 홍보담당관, 인재개발원
- * 위원장 : 홍종원, 위원 : 김종천, 문성원, 민태권, 우승호

- 자리를 떠나거나 다른 행동을 하는 등의 행정감사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은 없었으며 행정감사 전체적인 분위기는 잘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대변인과 홍보담당관이 분리된 상황에 맞춰 각 부서의 업무분장에 대해 점검한 부분이 눈에 띈다. 대전시 공식 콘텐츠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이 부족함을 지적한 부분도 의미 있었다. 행정사무감사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대안을 찾아 가는 자리임에도 단순한 사실관계확인에 그치거나 의견주장에 그친 부분은 아쉽다.

2) 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자료 검토>

3) 산업건설위원회

- * 피감기관 : 농업기술센터, 건설관리본부
- * 위원장 : 김찬술, 위원 : 남진근, 박수빈, 오광영, 이광복, 윤종명

- 의미 있는 질의는 있었지만, 질의 답변은 듣지 않고 본인이 준비한 질의만 할뿐이었다. 사전 자료조사와 현장 조사 등 준비를 해왔지만, 그에 비해 질의나 대안 제시, 행정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에는 질의가 부족했다. 전체적으로 위원회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였다. 위원장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계속 무시하며 행동하는 것은 사전에 합의를 하거나 위원회 차원에서 정리를 해야 한다.

4) 교육위원회

- * 피감기관 : 대전교육과학연구원, 대전교육연수원, 대전교육정보원, 대전유아교육진흥원, 대전특수교육원

* 위원장 : 구본환, 위원 : 김인식, 우애자, 정기현, 조성철)

- 현장조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 질의하는 모습은 있었다. 하지만 그 외에는 여전히 제공되는 자료 외에 추가적으로 질의를 준비 하는 모습이 부족했다. 조금 더 깊이 있는 질의와 내용으로 감사에 임하길 바란다.

2. 상임위원회 일일브리핑

1) 행정자치위원회

* 시행 : 2020년 11월 16일(월) 10:00 ~ 15:46

(1) 행정사무감사 피감기관

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피감기관	대변인실, 홍보담당관, 인재개발원

■ 위원장 : 홍종원, 위원 : 김종천, 문성원, 민태권, 우승호

(2) 행정자치위원회 모니터링 결과

* 행정자치위원회_대변인실, 홍보담당관, 인재개발원 주요 안건

① 대변인실

- 1)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분장
 - 대변인실과 홍보담당관 업무분장의 적정성에 대한 질의
- 2) 해명보도자료 증가이유
 - 매년 해명보도자료가 늘어나는 이유에 대한 질의
- 3) 영상콘텐츠의 장애인 접근성 부족
 - 대전시와 의회 영상물 제작시 자막과 한국수어를 포함해야 함에도 둘 다 없는 영상물이 많음을 지적.

② 홍보담당관

- 1)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분장
 - 대변인실과 홍보담당관의 업무 중복 여부에 대한 질의
- 2) 뉴미디어를 통한 홍보의 적정성 문제
 - 열악한 유튜브 콘텐츠 제작환경과 낮은 구독자수, 조회수 지적.
 - 한글자막, 수어자막이 빠진 영상물이 많은 상황을 질타.

③ 인재개발원

- 1) 코로나 19 및 시대변화에 따른 교육방식 전환 점검.
 - 비대면 교육 확대 상황 점검.
 - 장애 감수성에 대한 교육 진행 여부 확인.

(3) 기타

(4) 행정자치위원회 개인 평가

김종천: 질문이 형식적인 경우에 그쳐서 아쉬웠다 피감기관에 대한 격려는 좋았지만 비판과 지적이 있고 난 다음에 격려가 이뤄졌다. 격려만 이뤄졌다는 것은 행정감사의 의미를 퇴색 시키는 것이다

우승호: 자칫 지나칠 수 도 있을만한 의제를 잘 찾아서 질의를 잘했다. 특히 장애인 접근성과 감수성에 대해 지적을 많이 하는 모습을 보였고 약자를 대변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민태권: 질의는 좋았으나 깊게 들어가기보단 형식적으로 겉으로만 맴돈 질문이지 않았나 생각됐다. 누구나 쉽게 질문할 수 있는 수준의 질의였다.

문성원: 시의 적절하게 자료를 잘 준비해서 질문했다. 특히 대전시에서 운영하는 유튜브에 대해서 충주시 유튜브 채널과 비교해 지적한 것은 좋았다.

(5) 행정자치위원회 전체 평가

자리를 떠나거나 다른 행동을 하는 등의 행정감사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은 없었으며 행정감사 전체적인 분위기는 잘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대변인과 홍보담당관이 분리된 상황에 맞춰 각 부서의 업무분장에

대해 점검한 부분이 눈에 띈다. 대전시 공식 콘텐츠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이 부족함을 지적한 부분도 의미 있었다. 행정사무감사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대안을 찾아가는 자리임에도 단순한 사실관계확인에만 그치거나 의견주장에 그친 부분은 아쉽다.

2) 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자료 검토>

3) 산업건설위원회

* 시행 : 2020년 11월 16일(월) 10:05 ~ 17:55

(1) 행정사무감사 피감기관

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피감기관	농업기술센터, 건설관리본부

■ 위원장 : 김찬술, 위원 : 남진근, 박수빈, 오광영, 이광복, 윤종명

(2) 산업건설위원회 모니터링 결과

* 산업건설위원회-농업기술센터, 건설관리본부 주요 안건

① 농업기술센터 농기구 대여 건

- 농업기술센터가 유성구에 위치해 상대적으로 대덕구, 동구 주민들이 대여해가기에 어려움이 많음(긴 이동시간, 추가비용 등)
- 농기구 대여를 신청한 주민에게 배달을 해주는 방안 제안
- 유성구는 농업기술센터가 담당하고, 그 외 지역은 지역 농협의 조합장들을 만나 농협에서 대여를 해줄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제안

② 농작물재해보험 진행 현황에 관한 건

- 호우, 태풍을 포함한 자연재난으로 인해 발생하는 농민들에게 적절하고

충분한 보상 지원,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에게 경작지 복원에 대한 지원사업이 구축되어있는지에 대해 질의

-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해서 다양한 농업인들이 인지하고 있는지 가입 현황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함. 적극적인 홍보로 보상체계, 대상, 보상율을 확대해 안전한 농작업 환경조성 요청

③ 대전지역 기업 하도급 건

- 관급 공사에 하도급이 60%에서 70%로 상승한 것은 긍정적임. 그러나 대형 공사의 경우 메이저 기업이 들어와서 남은 비율을 하도급 받은 지역 기업이 나눠 갖는 경우가 많음. 대전시도 건설회사가 있는데 갑사로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
- 새로운 기술, 특허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대전에는 없다보니 어려움이 있음. 장기간 하도급을 받는 부분도 이익적인 측면에서 기업입장에서는 고려되는 부분이라고 답변

④ 하수관관로 사업 BLT 건

- BLT로 진행하면서 대전시가 내는 임대료가 현재 금리보다 비싼 것이 문제임. 또한, BLT로 진행하면 사후관리에도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해야 함
- 임대료보다 저금리기 때문에 은행에 이자를 내는 등 해서 문제를 해결 하고 장기적으로 비용이 적게 드는 것을 강구해야 함

(3) 기타

- 재생아스콘 활용의 건
- 농업인의 날 진행의 건
- 홍도과선교 건설의 건
- 블라드 설치의 건
- 임시 유성복합터미널 이전 도로 문제 건

(4) 상임위원회 개인 평가

- 박수빈 : 공가 사용. 사전에 피감기관에 대한 질의를 하고 질의를 해야 한다. 행정사무감사기간 내내 준비가 없다.

- 오광영 : 사전에 자료 준비하여 질의 하였으며 질의에 따른 정책 제안, 사업 제안을 적절하게 제시했다. 그러나 유성복합터미널의 문제는 의원이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을 촉구하는 질의를 했지만, 계속해서 행정은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단순히 질의하고 제기보다 실제 변할 수 있는 다른 행동을 보여야 한다.

- 남진근 : 행정사무감사 피감기관을 존중하지 않는 면모가 보인다. 중앙차선분리대의 하도급을 주는 기업이 대전기업이 없다는 것은 사전에 미리 확인을 하고 들어와도 충분했을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준비도 하지 않고 들어 온 것을 보여준다

- 윤종명 : 지역구 동구의 홍도육교, 용수골-남간정사 사업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지역구에 사업의 진행을 촉구 하는 것은 시의원으로써 대표성이 떨어진다. 질의 과정에 준비가 덜 되어 있어 의원도 질의하면서 핵심을 찾지 못한다. 장황하게 설명을 하기보다 간단 명료하게 질의의 핵심만 말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위원장의 중재와 지시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지적 이어짐.

- 이광복 : 위원들 중 피감기관 관련 자료조사를 하고 질의 하였으나 실제적인 대안이나, 변화를 이끌어내기에는 어려웠다. 원촌교, 대덕대교 하자보수 질의 건은 부실하게 진행되고 마무리 되는 듯한 시공에 문제를 제기했으나 당부성으로 마무리 되었다. 대부분의 질의가 당부성으로 끝났다.

5. 산업건설위원회 전체 평가

의미 있는 질의는 있었지만, 질의 답변은 듣지 않고 본인이 준비한 질의만 할 뿐이었다. 사전 자료조사와 현장 조사 등 준비를 해왔지만, 그에 비해 질의나 대안 제시, 행정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에는 질의가 부족했다. 전체적으로 위원회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였다. 위원장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계속 무시하며 행동하는 것은 사전에 합의를 하거나 위원회 차원에서 정리를 해야 한다.

4) 교육위원회

* 시행 : 2020년 11월 16일(월) 10:05 ~ 12:31

(1) 행정사무감사 피감기관

위원회	교육위원회
피감기관	대전교육과학연구원, 대전교육연수원, 대전교육정보원, 대전유아교육진흥원 대전특수교육원

■ 위원장 : 구본환, 위원 : 김인식, 우애자, 정기현, 조성철

(2) 교육위원회 모니터링 결과

* 교육위원회_주요 안건

① 대전교육과학연구원 운영 예산

- 탐구학습장 운영 예산과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질의.
- + 전시관 생생과학교실, 오프랩 전자현미경을 이용한 프로그램 운영, 은퇴 과학자나 자원봉사자 수당, 강사비, 실험실 재료비로 쓰임
- 2021년과 2023년 운영비가 동일한테 매년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10%씩이라도 증액해야 하며 홍보비 또한 올해만 책정돼있고 2021년부터는 0원이므로 예산을 신중하게 세우길 주문

② 대전교육정책연구소 연구 내용 반영 사항

- 연구한 내용이 정책에 얼마나 반영되는 지 모니터링이 이루어지는 지 질의함.
- + 연구정책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현재는 모니터링 불가능함.
- 좋은 연구 결과가 사장되지 않도록 정성적 정량적 평가가 필요하며 본청과 협의하여 장치를 마련하기를 주문함.

③ 대전특수교육원 학생 취업 현황

- 취업 현장 실습 프로그램 현황이 어떤지 질의함.
- + 코로나로 인해 상반기는 진행을 하지 못하고 하반기부터 세군데 업체에 11명 학생이 참여함.
- 학생들 만족도를 조사하길 당부함.

- 맞춤형 일자리 사업으로 취업 연결된 학생 수 질의.
- + 약 33% 정도로 저조한데 기업의 인식, 학생들 기능 등 종합적인 문제가 있어 극복하도록 노력하겠음.
- 취업 후 사후 관리도 향후 계획에 포함시켜 철저히 관리하길 주문.
- + 내년부터 구체적으로 현장 모니터링과 함께 업체 담당자와 함께 계획을 수립하겠음.

④ 중고등학교 특수학생 진로진학교실 마련 필요

- 중고등학교 특수학급 진로직업중심교사 배치 상황 질의.
- + 현재 특수학급 2학급 이상 학교는 완료하였고 앞으로 확충 예정.
- 배치된 진로교사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고 특수학생이 일상적 진로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진로진학교실을 마련하라고 교육청에 요구하길 주문.

⑤ 대전교육원 학생안전체험관 건립

- 연수원에 학생안전체험관 건립 계획이 있는 지 질의
- + 연수원의 역할이 아니지만 교육원에 큰 부지가 있으므로 안전체험 시설 구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함.

⑥ 원격수업 지원을 위한 온라인 시스템 구축

- 교구지원이나 원격수업 시스템 대응 준비에 대한 질의.
- + 교육부에서 플랫폼 구축 중이며 내년 3월부터는 전국 교사들이 자료를 공유할 수 있음.
- 문자통역이 가능한 태블릿 PC를 지원하길 주문함.

⑦ 3D 프린터 안전성 논란

- 유해성 논란이 있는데 사용지침이나 매뉴얼이 있는 지 질의.
- + 과학정보통신부에서 마련한 매뉴얼대로 운영 중.

(3) 기타

(4) 상임위원회 개인 평가

- 우애자 : 준비해 온 자료를 읽는 정도의 형식적인 질문이라 아쉬웠다. 피감기관에 대한 비판과 지적은 하지 않고 오히려 요구사항을 짚어

주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 조성철 : 지난 행감 지적사항을 제대로 이행했는 지 다시 한번 체크하고 원격수업에 대한 준비에 대한 질의와 대안을 마련하려는 모습에서 행감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태도가 보였다.

- 정기현 : 유아교육에 대한 고민, 특수학생 취업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한 주문 등 세심한 내용도 짚어주는 모습이 좋았다. 현장의 어려움을 핑계 삼지 말고 필요한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마련해달라는 당부가 인상 깊었다.

- 김인식 : 지나칠 수 있는 의제를 잘 찾아서 질의함. 타 지역에서 발생한 안전문제에 대한 자료준비도 적절했고 대전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매뉴얼과 지침을 마련해달라는 주문 또한 교육 뿐 아니라 안전도 신경 쓰는 모습으로 보였음.

(5) 교육위원회 전체 평가

현장조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 질의하는 모습은 있었다. 하지만 그 외에는 여전히 제공되는 자료 외에 추가적으로 질의를 준비 하는 모습이 부족했다. 조금 더 깊이 있는 질의와 내용으로 감사에 임하길 바란다.